

프로농구 첫 부자 MVP 탄생

부산 KT 허훈, 데뷔 3시즌 만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상... 부친 허재, 1998 챔피언 MVP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이 데뷔 3시즌 만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하며 리그를 평정했다.

허훈은 20일 논현동 KBL센터에서 진행된 2019~2020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총 111표 중 63표를 받아 김종규(DB·47표)를 16표 차로 제치고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7년 전체 1순위로 프로에 입문한 허훈은 세 번째 시즌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르며 '훈이의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허훈의 이번 정규리그 MVP 수상으로 프로농구 출범 후 처음 부자 MVP도 탄생했다. 허훈은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차남이다.

허 전 감독은 1997~1998시즌 기아 소속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3승4패로 현대를 넘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했지만 뛰어난 활약으로 챔피언결정전 MVP를 수상했다.

역대 유일하게 준우승팀에서 나온 MVP다.

허훈은 이번 시즌 평균 14.9점으로 국내선수 득점 부문 2위에 올랐고, 7.2어시스트로 이 부문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 김시래(LG)의 평균 4.8어시스트와 차이가 크다.

꾸준함과 팀 성적에서 우위를 보인 김종규를 제쳤다.

김종규는 43경기에서 평균 13.3점 6.1리바운드 2어시스트 0.8블록슛을 기록하며 DB의 공동 1위를 이끌었다. 국내선수 리바운드 부문 1위, 득점 부문 5위에 올랐다. 블록슛은 전체에서 4위다. 2018~2019시즌 8위였던 DB를 최고 자리까지 이끈 게 눈에 띈다.

하지만 투표단은 강한 임팩트를 남긴 허훈을 선택했다.

허훈은 지난해 10월20일 원주 DB전에서 3점슛을 연속으로 9개 성공하며 조성원(명지대 감독)이 보유한 기록한 한 경기 최다 연속 3점슛 성공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올해 2월9일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 2위에 해당하는 2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1위는 김승현의 23어시스트.

허훈은 이 경기에서 24점 2어시스트로 2020을 달성했다. 한 경기에서 20득점 이상, 20어시스트 이상을 동시에 기록한 건 출범 이후 허훈이 최하다.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데뷔 3시즌 만에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하며 리그를 평정했다. 허훈은 20일 논현동 KBL센터에서 진행된 2019~2020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상과 함께 꽃다발을 받고 있다.

DB에 못 미치는 팀 성적(6위)과 부상으로 8경기에서 결장한 부분이 약점으로 보였지만 '실상상 단신 외국인선수'라는 평가 속에서 독보적인 모습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은 셈이다. 허훈은 MVP 외에 베스트5, 플레이오퍼더시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기념한 상)까지 수상해 3관왕을 차지했다. 허훈의 친형 허웅(DB)은 팬 투표로 진행된 인기상을 수상해 형제가 함께 기쁨을 나눴다. /뉴시스

전문가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

고베大 교수 "상당히 비관적"

일본의 한 감염병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세를 언급하며 내년도 도쿄 하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CNN에 따르면 20일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郎) 고베(神戸) 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올림픽을 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이 열리면) 수백 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온다. 만약 일본이 내년 여름까지 전염병을 통제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이를 해내진 못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올림픽을 무관중, 혹은 관중의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열지

않는 한, 나는 내년 여름에 올림픽을 여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 공중보건학 교수는 지난 주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한 1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여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다"고 충고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된다면 가능한 일이다"며 "그러나 과학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다"고 했다. /뉴시스

"투명하고 성역없는 체육회 조성"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
체류형 대회 유치 등 앞장

동호인, 군민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 도입 ▲직원 처우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김 회장은 체류형 대회 유치, 타시·군체육회와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다.

그는 "체육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장수군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당일 대회와 아닌 체류형 대회를 유치하고 타 시군과 친선교류를 통해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도 적극적이다.

김 회장은 "체육을 접하다보면 재능을 발견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며 "선수로 거듭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널리 알려지면 장수군이 다문화 체육의 성지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을 펼쳐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며 "군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회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투명하고 성역없는 체육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은 '군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사용자)의 입장에서 체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장수군배드민턴협회장, 전북 배드민턴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느낀 점은 체육회가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앞으로는 선수들과

청소년 스포츠 안전의식 향상

전북체육회, 생활체육안전교실 스포츠안전캠프 사업 선정

도내 학생 대상 8월 캠프 진행 코로나19 여파 따라 일정 변동

전북체육회(회장 정장선)는 '2020 생활체육안전교실 스포츠안전캠프'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포츠 활동 교육을 진행, 스포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2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8월 남원 지리산유스캠ป์에서 스포츠안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 캠프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다.

이 사업은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

이다. 전북체육회는 이번 캠프에서 스포츠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서바이벌 시력과 전통할 국궁체험, 명랑운동회, 미니올림픽 등 체험시간도 마련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스포츠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안전의식을 심어주겠다"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스포츠안전재단의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 사업 평가에서 인천과 세종체육회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